

9의 본질

-독서편-

직당맨 지음

01 글을 씹어먹자

1. 예시는 예시다.

이번에는 글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은 이것을 위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시를 이해하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
라는 겁니다.

즉, 글에서 나오는 예시를 이해했다는 것이 글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방향으로 향한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에 대한 예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명제를 알고 있으면 이 예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예시만을 이해한다는 것이 ‘만유인력’을 이해하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과 예시만으로는 다른 물체가 지구 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예시와 명제는 다르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참/거짓 판단 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는 연역적입니다.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연역은 논증의 뼈를 구성합니다. 즉, 명제는 글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와 명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제를 보죠.

분석 예제 1] 2017 수능 국어 ‘포퍼와 콰인’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이해해야만 하는 명제는 ‘가설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입니다.

이를 통해 가설이 항상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보면 금속에 대한 것입니다. 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가설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가설과 조건, 여러 조건들이 합쳐져야만 가설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보니, 예측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설만 분석하는 게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 전부 다 분석해야한다는 ‘총체주의’를 콰인은 주장하게 됩니다.

REMARK 1 예제 2에서 나온 예시 이해

가설만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가설은 경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설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 없이 열과 팽창의 관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경험적 지식은 과학자들이 실험해서 얻은 겁니다. 즉, 가설 자체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예제 2에 나온 예시를 이해하는 것이 쉬운가요?

위에 정리한 예제처럼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시는 이해조무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문이 어려워지면 예시는 그 조무사 역할도 제대로 못합니다.

수능 국어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수능 국어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발문이 어려워진다?
- ② 선지가 어려워진다?

둘 다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를 내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출제자들이 변형할 수 있는 것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국어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지문을 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문 난이도를 올린다는 것은 뭘까요?

무작정 지문의 길이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능 지문의 길이는 지면상 어쩔 수 없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짧은 지문 안에 더 많은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정보의 밀도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보의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필요가 없는 표현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는 표현들 중에 '예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지문에서 예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명제 자체를 이해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재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예시보다 명제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니셔야 합니다.

REMARK 2 국어 시험의 모든 과정		
시험 전	국어시험 중 난 될 놓이다는 마음을 먹고 시험 보기	시험 후
0. 전에 실수한 내용에 대한 정리내용 확인하기 1. 문제 반복 풀이 2. 문제에서 반복되는 규칙 찾기 3. 독서-배경지식 4. 문학-문학개념어 5. 문법-문법 무한 반복	0. 시험지문과 문제와 적당한 거리두기 (=이 문제들은 나를 틀리게 하려 한다.) 1. 지문-문제 반복 최소화하기 2.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함 3. 더 확실한 것과 덜 확실한 것을 구분	0. 오답을 확인하고, 이것을 왜 틀렸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정리 (수능 후) 만족할 점수를 얻고 기분 좋음

03 오답분석

수능 국어는 제대로 읽으면 맞아야 하는 법칙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읽는 대상은 지문과 문제가 있으며
읽는 행위에 관한 오답 행위는
못 읽는 것과 잘못 읽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를 이용해 구조화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못 읽음	잘못 읽음
문제	a	b
지문	c	d

총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지요.

1. a (문제를 못읽음) 문제를 하나씩 천천히 읽어본다.

이게 문제를 양치기를 하다보면 자주 있는 일인데
'습관적으로 이런 문제겠지하고'
문제와 문항을 대충 읽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문제와 문항들을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문제도 다 읽고
문항도 1~5번까지 다 읽고
시간 들여서 말이죠,

좀 문제 푸는 시간이 느려진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못 읽어서 못 푸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즉, 남은 기간동안 차분하게 읽는 습관이 생겨야 아예 안 읽는 습관이 줄어들 겁니다.

2. b (문제를 잘못 읽음)

문제에 나와있는 문장을 분석해본다.

이건 문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장의 문장성분을 분석해보는 겁니다.

마치 영어독해처럼요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으니 주어, 서술어 체크 필수구여

또 이 작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반복적으로 놓치는 문장성분들
그것들이 확인되면, 성공!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검색해보는 게 좋겠죠.

3. c (지문을 못읽음)

구조적인 당위성을 부여해본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수능날가서는 고쳐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문제만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좀 깨달음이 필요해서... 라고 해도, 제가 가이드라인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 답을 드리자면

왜 이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즉, 못 읽은 문장을 보고 글의 전체 흐름에서 못 읽은 문장이 왜 필요한지, 문장 주변부에서 못 읽은 문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차분하게 자기 나름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구조독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려운 말은 필요없고,

인간은 이유없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거든요. 이유와 당위가 당신을 움직일 테니까.
한번 이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d (지문을 잘못 읽음)

지문의 나와있는 문장을 분석해본다.

b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문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아까처럼 문장의 문장성분을 분석해보는 겁니다.

마치 영어독해처럼요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으니
주어, 서술어 체크 필수구여

또 이 작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반복적으로 놓치는 문장성분들
그것들이 확인되면, 성공!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색 ㅋㅋ~

REMARK 2 오답 해결에 대한 예시 (b,d 케이스)

18. ㉠, ㉡의 입장에서 <보기>의 (a), (b)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a) '율'과 '령'에는 조문이 없으나 이치상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자는 태 40을 친다. (지은 죄의) 사리(事理)가 무거운 경우에는 장 80을 친다.
- 대명률, 불응위조 -

(b) '령'으로는 금지한 바 있으나 '율'에 죄명이 없는 경우, '령'을 어긴 자는 태 50을 친다.
- 대명률, 위령조 -

① ㉠: (a)는 '율'과 '령'에 따라 죄의 경중을 물어 형벌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2022학년도 10월 모평 오답률 4위이며,
오답인 이유는 "'율'과 '령'에 따라"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a) '율'과 '령'에는 조문이 없으나 이치상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자는 태 40을 친다. (지은 죄의) 사리(事理)가 무거운 경우에는 장 80을 친다.'에서 '율'과 '령'이 아니라 '이치상 마땅히 안되는 것'에 따라 태 40을 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문장구조적으로 'A(올과 령)가 아니라 B(이치상 마땅히 안되는 것)인 자는 40를 친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장과 함께 답의 선지를 잘못 읽게 된 이유는 '올과 령'에 너무 꽂혀서 다른 정보(이치상 마땅히 안되는 것)가 안들어 와서 그런 겁니다.(15%)

여기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 잘못 읽은 문장을 형식적으로 분석했으며
- 왜 잘못읽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와 동일한 문장구조에서 반복적으로 틀린다면 not A, But B 구조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구조가 있다는 것이며 의식적으로 A가 아니라 B로 집중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 즉, 반복되는 잘못은 꼭 확인해야 한다.

5. e (지문과 선지 다 읽었는데 틀림) 해당 추론을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아야 한다.

아주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분명 지문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선지도 잘못 읽은 게 없는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문과 선지 사이에 연결관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연결관계가 뻑세게 나오는 문제는 어떤거냐면 추론문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추론을 제대로 못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것이다.

추론문제와

추론하는 방법

1.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쉬운 추론 문제: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사용함
즉, 일치문제로도 풀 수 있음

어려운 추론 문제: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음
즉, 일치 문제로 풀수 없으며, 퍼러플레이징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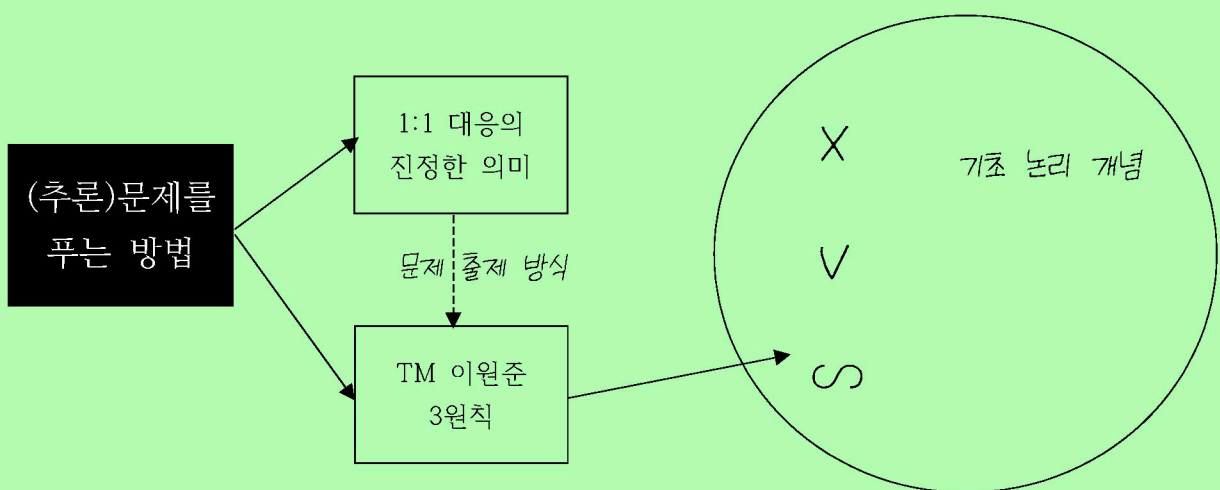
1:1 대응의 진정한 의미

** EBS해설을 보자

2. 선지에서 3원칙 TM 이원준

논리문제 출제 방식

- 참인 문장을 만들고 3원칙 중복적용하여 틀린 문장 만들기
- 선지를 바꾸는 방식에는 논리적 구성 혹은 쌍개념이 있다.



<추론 문제에 대한 대응 가이드>

04 독서분석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뛰

[A]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 <u>노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u> 사고 과정이 노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고정	[A] : 독자는 읽는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 중심으로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노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것	<p>특정 단어에 (고정) 짧은 도약 다음 단어에 (고정) 짧은 도약 다음 다음 단어에 (고정) 긴 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짐
	: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음 -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남
	*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노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노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함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되는 경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을 때 -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 [원인]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도약의 방향성]
	[역행]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순행]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 ②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다.
- ③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의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는 눈동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글을 읽으며 우선 글 전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 나갔다. '장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앞에 읽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나니 문맥을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도서관의 등장과 역할 변화가 글의 주제라는 것을 파악하고서 ㉣그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어 나갔다. '파피루스를 대신하여 양피지가 사용되었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 ㉤'대신하여'와 달리 '파피루스'와 '양피지'처럼 생소한 단어는 하나씩 확인하며 읽었다.

- ① ㉠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서는 고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 ② ㉡ :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③ ㉢ :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도약이 나타났을 것이다.
- ④ ㉣ :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짧고 고정 횟수가 적었을 것이다.
- ⑤ ㉤ :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가] 나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

- ①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을 때
- ②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읽을 때
- ③ 다양한 글을 읽어서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 ④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졌을 때
- ⑤ 읽기 목적에 따라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때

1번: 추론

② 중에 하나 : 다른 방법이 있음

③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이전보다 고정 횡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④ 단어의 친숙함 \neq 단어의 중요함

⑤ 원인과 결과: 중요한 단어

2번: 추론 (하지만 일치로도 풀 수 있음)

⑤ 생소함과 익숙함은 반대관계

3번: 추론 (하지만 일치로도 풀 수 있음)

① 없는 내용

추론 문제 비율: 3/3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문화 산업에 의해	아도르노 H ①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
양산되는 대중 예술	②-1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음
	②-2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함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 ①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②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봄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 문제상황
아도르노의 규정:	- 동일성: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동일시키려는 속성 - 비동일성: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
아도르노의 주장: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켜야 함 -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함 -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함
대응책	①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 ②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어야 함
쇼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	[이것을 아도르노가 높게 평가함] 전위 예술은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 아도르노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봄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쇼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음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아도르노의 생각] - 예술은 사회적 산물 -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p> </div>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㉞유리된 ‘아름다운 기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㉞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㉞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㉞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㉞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㉞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 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아도르노 미학의 장점] -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함
것이어야 한다	↳ [에시] 세잔의 작품: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함
	↳ But,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대시스
미대시스란 :	- 눈에 보이는 특성의 사파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는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
주체의 관념을	[아도르노의 원래 의도]
재현하는 것 /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
감각될 수 없는 것을	[아도르노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결과]
감각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구현하는 것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함
	결국, (아도르노의 원래 의도이든 의도에 맞지 않는 결과이든 상관없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대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베냐민: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아도르노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함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But,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사전에서조차 새로운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음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함
것이 가능하다	-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
대중 음악이 사회적	-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음	

4.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함. ㉣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7.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4번, 일치

③ 변화과정이 없음

5번, 추론 (하지만 일치로도 풀 수 있음)

① '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에' 선행하는 관계다!

6번, 추론 (하지만 일치로도 풀 수 있음)

① 정형적 형태는 재현되지 않는다.

② 예술가의 주관이 없다 ≠ 예술가가 감상자가 되는 것

③ [아도르노의 입장] 예술가가 인식하는 세계의 본질
= 현대 사회의 부조리

④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7번, 추론

① 전위예술이 빠져 있음

② 전위예술 자체가 동일화에 저항함

③ (나)의 글쓴이의 입장

④ 동일성의 비동일성의 구분 ≠ 동일화 자체

추론 문제 비율: 3/4

8.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① A :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 ② A :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③ A :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B :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⑤ B :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맞바꾸는
- ② ㉡ : 동떨어진
- ③ ㉢ : 바라보는
- ④ ㉣ : 빼앗는다
- ⑤ ㉤ : 찾아내는

01

이상과 현실, 그리고 공통점

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나]글쓴이가 생각하는 아도르노의 원래 의도

-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나]글쓴이가 생각하는 아도르노의 의도를 적용한 결과

-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 (나)의 글쓴이가 생각하면, 아도르노의 원래 의도는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에게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도르노의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면, 감상자의 미적체험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국한시켰다.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부조리'만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현대 사회의 부조리만으로 한 개인의 생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①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가부와 같이 어떤	[일반]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
재산이 대가 없이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음 [예외]
	[이유]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무상 처분자: 피상속인 /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됨
	[유류분]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
	If,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됨
	▶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만 받음 = '유류분' - '이미 상속받은 이익'
	-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님
	-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 [일반원칙]
	[예외상황]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함
	[또 다른 상황]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음
	▶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
	-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원칙]
	[예외상황]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지분분배]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계산 이후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11.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1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7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10번, 일치

②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일부' ≠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

11번, 추론

① 때때로 '전부'가 아니라 '지분'

② 무상취득자 ≠ 상속자

③ 물건이 아니라 '돈'

④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⑤ 돈 ≠ 지분

12번, 추론

①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

② 상속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포함함

③ 4번째 문단을 보시다

④ '나눠가짐'이 아니라 '나눠가질'

⑤ 상속 개시 후의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①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3번, 추론

④ 총 유류분 반환금액 200, B를 다 받으면 A는 100

A물건의 지분 = $100/700 = 1/7$

* B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중 하나

추론 문제 비율: 3/4

02

부분과 전체: 경계선 찾기

1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상속 받을 수 있었을 이익 ≠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적비교>

상속 받을 수 있었을 이익 ≥ 유류분 > 유류분 부족액

03

계산식의 이해, 또는 시점의 이해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류분을 만든 이유를 생각하자!!

<2문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류분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상속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측정해야 하며, 이는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한 것이며,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포함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무상 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04

계산식의 이해, 또는 특정 시간의 이해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7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고, 이는 1/3이 아니라 1/7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주어진 조건과 처분 수순에 따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특정 시간의 기준이 달라진다.

계산식을 설정할 때 시간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간에 따른 가치의 변화라는 개념을 통해 문제를 설정한 것.

지난 6월은 변화량이었고,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럼 남은 것은 변화되는 순간, 혹은 순간변화량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문제를 선택했다.

계산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선, 무조건 표시

+이든 -이든 \times 이든 \div 이든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 모든 내용을 한번에 파악하고 암기할 수 있다면 표시가 필요없음

- 그게 아니라면 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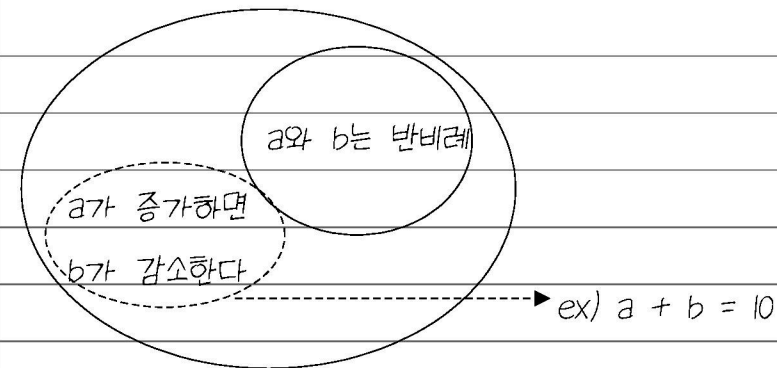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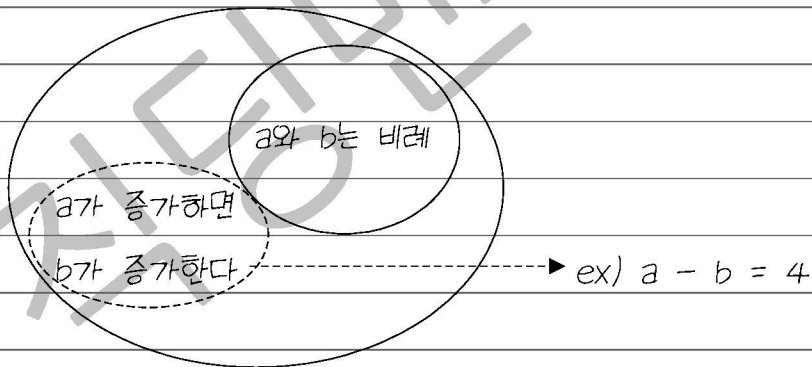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야 한다.

- 지문에서든 문제에서든 계산 관련하여 무엇이 변하는 건지 알아야 함

- 추가적으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함

(고난도 문제) 비례와 반비례

두 변수 a , b 에 대해서 (a, b 는 자연수)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 중에서 두 개: '중요도와 적합도는 대표적인 항목임
	-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함
	[그래서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
	-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됨
	-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됨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지만 두 웹 페이지는 각각 2가 보낸다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
	-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짐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
	-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짐
	-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됨
	▶ [예시]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
	-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함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짐
	-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함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 ②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가 커진다.
- ③ 링크 분석 기법은 웹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 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 ④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의 합이다.
- 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15. ㉠, ㉡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 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을 높인다.
- ②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 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③ 알파벳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 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 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을 높인다.
- ⑤ 다른 웹 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을 높인다.

16. <보기>는 웹 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원은 웹 페이지이고, 화살표는 웹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의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됨을 뜻한다. 댄핑 인자는 0.5이고,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된 값이다.
(단, 링크와 댄핑 인자 외에 웹 페이지의 중요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a의 중요도는 16이다.
- ②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 ⑤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이다.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 ② 그들은 큰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했다.
- ③ 철새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훨훨 날아갔다.
- ④ 선수들은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 ⑤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어서 좀 당황했다.

	14번, 추론 (하지만 일치로도 풀 수 있음)
	① '적후'가 아니라 '미리'
	③ '적합도'가 아니라 '중요도'
	④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은 배제되어 있음'
	⑤ 인덱스: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목록
	≠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함
	15번, 추론
	① '중요도'가 아니라 '적합도'
	② 해당 페이지에서 나가는 것은 해당 페이지의 중요도 계산과 무관함 즉,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다르다.
	③ 인덱스: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목록
	≠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함
	④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16번, 추론
	① 16이 아니라 10
	② a가 b로부터 각각 받는 값: 2 / a가 c로부터 각각 받는 값: 8
	③ b의 중요도: 8 / c의 중요도: 4
	④ b의 중요도: 4
	17번, 추론
	☆ 추론 문제 비율: 4/4
	1. 추론 문제 비율이 훨씬 높아짐
	2. 과도기적 추론 문제 형식 (4개 선지 일치, 1개 설지 추론으로 구성)
	3. 6월 모평과 문제 출제 방식이 많이 다름: 실험적 문제 구성
	4. 6, 9 혼합 = 추론 문제 비율 상승 + 더러운 세부 정보 일치 문제

05

계산식은 표시해야 한다.

16. <보기>는 웹 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앞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원은 웹 페이지이고, 화살표는 웹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의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됨을 뜻한다. 댄핑 인자는 0.5이고,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된 값이다.
(단, 링크와 댄핑 인자 외에 웹 페이지의 중요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a의 중요도는 16이다.
- ②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 ⑤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이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공식 ①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공식 ②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추가적으로 생각하자!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해당 지문은 선지 3, 4, 5번의 논리 구성의 기반이 된다.

06

셀 수 있음과 셀 수 없음

17. 문맥상 ㉔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 ② 그들은 큰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했다.
- ③ 철새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훨훨 날아갔다.
- ④ 선수들은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 ⑤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어서 좀 당황했다.

수백 개가 ㉔넘는 항목에서 항목은 셀 수 있는 것이며, 결국 넘는이라는 수식표현은 셀 수 있다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단어 의미 문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처럼 단어에서 공통된 속성을 확인하여 논리적 기준으로 개념을 구분하게 문제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논리적인 기준을 찾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때 피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기준에 따른 구분>



必生則死

必死則生